

채란계의 수익을 높이는 10가지 요점



년간 한마리당 이익은 계란 15개에 상당한 것으로 이하에 기술되는 10가지 요점은 캘리포니아주 양계지도자 막그·오·노우 씨의 사육관리 지침이다.

채란계 한 마리당 이익폭이 매우 적으므로 겨우 몇개 안되는 것을 잊게되면 이익을 잊게 된다. 양계업자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 산란개수를 중요시함으로 수익을 개선할 수 있고, 또한 가지는 계란의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비용 항목을 중요시하는 업자도 있다.

결국 최대의 이익을 얻는 길은 수익에 영향 주는 마이너스 요인을 최소한 줄이는데 있다.

많은 양계자들은 거의가 년간 1수당 50센트의 이익을 얻는데 불파함으로 생산자 가격이 한다스(12개)당 50센트인 곳에서는 이 50센트의 이익은 계란 14.3개에 상당하다. 그러므로 년간 한마리당 1개를 더 산란하면 7%의 증수를 한다. 물론 이와 반대라면 7%를 감수하게 된다.

이에 관련된 계산을 표 1에 나타냈다.

〈표 1〉 생산자 난가와 그 장소의 이익에 상당한 계란개수

12개당 난가(다스)	1수가 50센트 이익인 장소의 계란개수
48센트	12.5개
42 "	14.3"
36 "	16.7"

다음은 1수당 평균 이익이 헨하우스 생산 난 15개에 상당한 것으로 하여 검토해 본다. 수익을 검토하는 제 2의 방법은 생산 원가에 관련된 각 항목을 분석하는데 있다. 중요한 항목은 표 2에 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 각

백명기

<동남사료 업무부장>

항목의 비율(%)은 해마다 또는 양계업자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여기서는 각 항목에 대해서 적게라도 절약함으로서 수익면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얻는가를 검토해 보는데 있다.

예를 들면 육성비를 1% 감소시키는 것이 이익에 몇 %가 증가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데 있는. 결국 육성비가 2 달라인 것이 1% 절약이 가능해도 육성비는 1.98달라로 나타난다.

〈표 2〉 생산비항목과 그의구성

육성비(폐계대와의 차액)	22%
산란기사료비	59
산란기노임	8
기타산란기비용	11
계	100%

〈표 3〉 1%개선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

육성사료비	2.5%
육성비	4.0
산란기사료	10.5
헨레이산란율	20.0
폐사율	6.0
난	1.0~8.0
증	

하나의 예로 헨레이 산란율이 70%인것을 1% 증가한다면 70.7%로 나타난다.

이와 똑같은 계산 예를 표 3에 표시했다.

표 3은 경영 계획상의 적은 개선이 이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산란율은 가장 중요한 항목인 것에 주의해서 봐야 한다. 한마리당 이익은 겨우 15개의 계란을 얻는데 있다. 그러므로 다음은 최고의 수익을 얻는 경영관리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10개 요점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1. 경비의 기장을 하고 있는가.

양계업자의 대개는 사양기록을 정리하고

있다. 즉 헨데이산란율, 폐사수, 사료소계량 등이 일반적인 항목이지만 생산원가면에서 보면 이 자료는 너무 의미를 얻을 수 없다. 가장은 계란생산비용에 관해서 행하고 이를 주단위로 접계하여 정리하는데 있다.

그 이유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정기간에 1다스(12개)당 생산월가를 알아서 기록을 정리해 둔다. 이것은 양계장의 전계군의 평균치를 얻는데 필요하며 계산에 있어서는 계군 전체를 계산하는 것이 좋다. 계란의 생산원가를 구성하는 비용항목은 다음 4개가 있다.

- 1) 육성비(폐계가격을 제한것)
- 2) 산란기사료
- 3) 산란기노임
- 4) 기타 산란기비용

다음은 이를 주간 계산하는 간편한 방법을 설명한다.

① 육성비는 부화일이 동일한 계군 전체를 일정 일정에 달하는 시점에서 산출한다. 헨데이 산란율이 50% 도달 일정이 최적이다. 이 때 까지의 경비에서 종료시의 폐계가격을 뺀 나머지가 이제군의 육성비가 된다. 그 수치를 52주로 나눈 값이 주에 해당하는 육성비가 된다.

② 산란기 사료비는 이것도 주단위로 산출한다.

③ 산란기 노임은 경영주, 가족 및 임시 고용원의 임금으로써 이를 주단위로 계산한다.

④ 기타 산란기 비용은 자본이자, 감가상각비, 제세금, 소모품대, 잡비 등이다. 이것도 주단위로 계산한다.

이상의 4 가지의 함께 금액을 주당 산란개수로 나누워서 1개당 생산원가를 얻게된다.

2. 피크 산란율이 낮지 않은가.

피크 산란율과 년간 총산란 수와의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필히 피크 산란수가 높은 계군은 언제나 피크가 낮은 군보다 총산란수가 많은 경향이 있다. 계군의 산란곡선은 비슷함으로 피크산란이 낮으므로 오는 손실은 이후에 보충하기가 불가능하다. 어떤 계군의 표준 피크가 헨데이 산란율에서 92%

로 나타난 것으로 실제의 피크가 87.4%라면 년간 총 산란계수는 5% 감소한다. 피크 산란율이 1% 낮은 것은 총산란 개수가 년간 대략 2.5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2.5개는 1수당 이익이 겨우 계란 15개 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표준 피크 산란율이 92%인 계군에서 이것이 87%인 양계장은 계란 15개 대지 12.5개는 무의미하게 약화된다.

3. 초산 일정은 적절한가.

초산란은 일반적으로 적고 따라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계란의 크기는 닭의 일정에 따르며 산란을 빨리 시작하면 장기간에 걸쳐 작은난을 생산하며 산란 지속성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초산을 주주일 지연시키므로써 조산을 막을 수 있다.

반대로 육성기간을 길게하면 육성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역시 경제성을 낮게 만든다. 채란계는 각각 계통에 따라 적절한 초산일정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표 5〉 조산계와 정상계의 난중에 따른 경제성

	총생산 개수	대란율	대란개수	대란가 중소란가	판매금액
조산계	240개	75%	180개		
정상계	245〃	80〃	196〃		
차 이	5〃	5〃	16〃	3원	48원

다음 표 5에서는 조산한 닭(대란율 75%)과 정상인 닭(대란율 80%) 사이에 난중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하고 있다.

4. 케이지 수용계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없는가

산란계를 케이지에 수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스트레스를 주는 결과가 된다. 충분한 면적을 주어야 하며 닭을 평사사육보다도 년간 1수당 계란 12개를 적게 산란하게 된다. 1수당 60inch²(19.6cm²)의 면적이 최소한도이다. 그 이하에서는 1inch²(4cm²) 감소하는 데 년간 1수당 대략 1개를 산란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면 50inch²인 케이지에서는 1수당 손실은 계란 10개에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1수당 이익이 계란 15개에 상당한 것

을 잊어서는 않된다.

5. 육성계의 육성비가 높지 않은가.

생산 원가 항목중에서 육성비는 두번째로 큰 항목으로 총생산 원가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육성비를 1% 감소시킴으로서 이익은 4% 증가된다.

결국 육성비를 1% 절감하는 것은 계란 0.4 개분을 증익하는 것이다. 육성 사료비는 육성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이고 있으며 이를 1% 절감하면 산란기의 이익은 2.5% 증가한다. 그러므로 만일 10%를 절감할 수 있다면 25%의 수익증가를 올리게 된다.

6. 산란기의 사료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는가.

성계사료비는 생산원가 항목에 있어 큰 비중을 차이고 있다. 이를 1% 절감 함으로서 이익은 10.5% 증가한다. 그래서 1%의 사료 절감은 계란 1.5개에 상당하게 된다. 이 항목에 관하여는 모든 점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계란 1다스당 낮은 비용으로서 생산하고 있는가. 산란율 및 난질을 유지하면서 기별급여법에 의하여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가. 체중의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지 않고 사료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모든 점에 관하여 검토하여 산란기의 사료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지 않으면 않된다.

7. 산란기의 폐사가 많지 않은가.

폐사는 계군의 손실임으로 육성계로부터 육성비의 손실을 의미하며 장래 그 탓의 생산 이익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게다가 폐사가 증가되면 산란은 남은 닭들이 부담하게 됨으로 남은닭 1수당 과해지는 육성비는 계란 2~3 개분 이상 증가되게 된다. 폐사율이 1% 감소 하므로 이익은 6% 증가한다. 1%의 폐사율이 저하되는 의미는 예를 들면 년간의 폐사율이 10.0%이면 이것이 9.9%로 되는 것이다.

또한 폐사가 증가되는 양계장은 사육환경이 비위생적으로 나타나므로 잔존계의 산란에도 영향이 된다.

8. 계란의 크기가 어떠한가.

계란의 크기가 증대한다고 그것이 직접 이익에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소란은 생산개수가 동일해도 1수당 이익은 적다. 평균 난중이 1% 증가하면 8% 정도의 이익이 증가된다. 그러나 어느 크기 이상의 대란은 보다 많은 사료를 필요로 함으로 이익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계란 크기와 이익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9. 파란이 많지 않은가.

계란의 파손은 직접 손실이 되며 취급중의 파손은 정말로 손실로 끝난다. 1% 파손은 1 수당 약 2.5개의 손실이 된다. 2%의 파손은 계란 5개의 손실이 되므로 이익이 15개의 계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10. 산란기간은 적절한가.

닭은 그 산란 기간중 어느 시점에서도 생산원가 이상의 수입을 모두 얻는 것은 아니다. 단 난가가 상당히 높고 생산원가가 낮은 양계장에서는 어느정도 산란율이 낮아도 이익을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산란 전기에는 산란율이 높아도 계란이 작으므로 이익이 되지 못하여 산란후 기에는 산란율이 낮아서 역시 이익은 별로 없다. 그러나 산란중기 8개월 내지 9개월 사이에 생산되는 통상 이익이 가장크다.

산란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하여도 이때까지의 이익이 산란말기의 손실에 의해서 상실되므로 산란기간은 년간 최대의 이익을 얻도록 조절해야 된다.

많은 양계가가 연도말에 있어서 년간의 현금 수입의 현금지출을 초월하므로 기간 중의 산란은 전부 이익을 얻게 된다고 생각되지만 현금지출이 겨우 조금 적은 것으로 안다. 이것이 생산원가를 주단위로 계산해야 된다는 이유이다.

계군 전체의 평균 생산 원가를 이용하는 양계가도 있지만 같은 일정의 계군에 있는 계사의 통계를 사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